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박차

남원시, 라이프케어 산업 중심 17만평 규모 남원일반산업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남원시가 제약, 뷰티, 의료기기 등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질병의 예방 진단과 치료목적이 제약 및 의료기기, 뷰티화장품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관련 라이프케어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주도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만 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 대표 특구로 지방정부가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의 특구로서,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법인세 및 취득·재산세 등 세제 혜택,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5%~10%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남원시는 전북 자치도와 함께 6대 혁신성장의 6대 핵심 선도 사업인 라이프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17만 평 규모의

남원일반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시는 앞서 8개 기업과 68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남원시 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12월 도에 제출하였으며, 도에서는 남원시와 함께 익산, 고창을 포함 39만 평 규모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천연물 바이오소재 기반 글로벌 라이프케어 구축을 비전으로 △(산업혁신) 바이오 소재기반 라이프케어 신산업 육성 △(기술혁신) 바이오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화 △(생태계 구축) 라이프케어 산업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 등 3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 인력공급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바이오, 스마트팜, 곤충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 8기 최경식 남원시장의 기업유치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군의 기업 이주지원 보조금 지원 △국내 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5% 상향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15% 상향 등의 자체 인센티브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이번 특구 지정에 전북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축제부문' 대상

100년 바라보는 춘향제 가치 일러

남원시는 2025년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축제부문'에서 대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2025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자체 혁신, 콘텐츠로 표현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주호영 국회의장, 신정훈 국회의원, 안전위원장 등이 공동 주최,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 주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홍보 대상은 전국 기초지자체로부터 응모받은 영상콘텐츠와 신청서를 통해 종합대상, 7개 부문(정책, 축제, 환경, 관광, 역사문화, 사회복지, 안전 관리), 특별상(홍보대상) 및 특별상(유튜버) 등 9개 분야에 걸쳐 우수 지자체를 선별하였으며, 남원시의 경우 축제 부문에서 수상했다.

남원시는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제로 100주년을 내다보는 춘향제가 지난 94주년을 기점으로 글로벌화되고, K-컬처 중심으로 나아가는 축제로 다변화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특별해진 '제94회 춘향제'의 다채로운 모습을 애플터 튜브로 영상



남원시는 2025년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축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기록화함으로써 226개 지자체에 새로운 축제, 춘향제의 면모를 알리고자 출품했다.

또한 남원시는 '100년을 바라보는 춘향제'의 가치를 일러기 위해 타 축제와 달리 단순히 먹고, 놀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축제 뒤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현장을 위해 노력한 숨은 공로자를 영상 후반부에 삽입함으로써 춘향제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까지 녹여내 축제(복지, 안전, 서비

스 등)의 사회적 가치까지 꼼꼼히 챙기는 축제임을 시사하고자 했다.

남원시 홍보전산과 조은영 홍보팀장은 국민들을 향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제95회 춘향제가 관하부 일원에서 펼쳐진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으며, 이번 축제 부문 수상작(영상)은 남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 '남원시 TV'에서 제94회 춘향제 공식 애플터튜브의 검색으로 시청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순창군은 심각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6일 라오스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면접을 실시해 40명의 우수 인력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열거남 순창부군수를 비롯한 순창군 대표단은 라오스 맵사이공군을 직접 방문해 현지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선발 과정에는 순창군과 순창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라오스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도 구축했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체력 검

사, 색맹 테스트, 심층 면접 등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군은 이번 면접에서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체력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 적응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최종 선발된 40명의 근로자들은 한국 입국 전까지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은 이들을 위해 비자 신청 지원은 물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의 이해, 농업 기술 기초 교육, 안전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을 강화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열거남 순창부군수는 "라오스 근로자들이 순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들이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의 동력이자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순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미 농업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지난해 3,113명의 근로자가 786개 농가에서 활약하며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했고, 현장 평가에서 농가 만족도 90% 이상을 기록하며 신뢰도를 높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운영·관리 총력

임실군이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운영·관리 준비를 위해 월동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조성된 장미원의 생육환경 극대화를 위해 지난 1월 동계방제, 유기물 시비, 에버랜드, 서울대공원을 벤치마킹했다.

또한, 2월에 10개월간 근무하는 전문성을 갖춘 1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중대재해법 교육, 장미 특성 이해, 생육 관리 및 전정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미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에버랜드, 서울대공원 장미원을 방문하여 임실군 장미원에 적용 가



능한 방법을 찾아내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장미품종을 장미 전문 공급 농장인 로즈팜에서 공급받기로 했다.

3월에는 장미원 조성 후 부속품 트래일리스를 설치, 덩굴장미를 식재하여 그들이 마련된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로 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조성된 장미원은 사계절장미원 2.65ha와 유럽형장미원 3.87ha에 2만2,000주를 식재하여 유럽풍의 치즈캐슬과 어우러진 멋스러운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군은 2025년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하여 가족과 연인이 방문하는 5월에는 꽃향기 가득한 장미와 함께하는 멋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이 전통이 숨쉬는 문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장미원 운영 관리를 할 것"이라며 "2026년 임실 장미축제를 개최하여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행복콜버스·택시사업 '호응'

임실군,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주민 위한 교통 복지서비스 제공

임실군이 운영 중인 '행복콜버스·택시사업'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복콜버스·택시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 복지서비스로, 마을 주민들이 읍·면 소재지나 전시장 등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행복콜버스는 35개 마을, 행복콜 택시는 47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들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행복콜버스는 35개 마을, 행복콜 택시는 47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들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행복콜버스는 이용 1시간 전 행복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는 수요응답형 시스템으로, 주중에 운행되며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행복콜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월요일과 장날에 운행된다.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행복콜버스 요금은 일반 1,000원(학생 500원), 행복콜 택시는 대당 2,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운행 시작 이후, 행복콜버스·택시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이며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했다.

정남을 기준으로 시장을 찾는 어르신들, 병원 진료를 위해 읍·면 소재

지로 이동하는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강진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예전에는 버스가 없어서 전시장이나 병원을 방문하려면 이웃이나 자녀에게 부탁해야 했는데, 이제는 행복콜버스·택시 덕분에 스스로 편하게 다닐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복콜버스·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일상의 자유를 되찾아준 서비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군은 행복콜사업 운영 초기 시범운행을 거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까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행복콜버스·택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행복콜버스·택시가 교통 오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소식통

남원농기센터, 농생명 바이오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3년에 처음 개설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농생명 바이오(곤충산업) 인력양성 교육에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교육은 국내 식용곤충 산업에 대한 이론과 곤충 농가 방문을 통해 곤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곤충 사육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곤충 사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총 40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곤충산업 종사를 희망하는 남원시 거주자로, 19일까지 20명을 선착순 모집중이며, 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거나 전화(063-620-8025)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생명 바이오(곤충산업) 인력양성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곤충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교육신청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정월대보름 맞아 특별경계근무 돌입

순창소방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월대보름을 맞아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은 불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이번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순창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 기간동안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소방공무원 25명과 대응소방대원 24명, 소방차량 7대를 배치해 비상출동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진화수 현장대응단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군민들에게서도 스스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도내 최대 규모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임실군이 올해에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날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관내 모병 수련인 40명을 대상으로 포획허가증을 발급하고, 지난 3일에는 포획 활동시 준수사항 및 총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마쳤다.

도내 최대 규모인 임실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앞으로 농작물 피해 농가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고 멧돼지, 고라니 등을 중점적으로 포획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극대화하고,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군,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건강관리 대상자 모집

순창군이 오는 10일부터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대상자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한 순창군민이다.

이번 서비스는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참여자들은 순차적으로 사전평가를 받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활동량계가 지급되며, 개인의 질환 여부에 따라 블루투스 혈압계와 혈당계도 추가로 제공된다.

이들, 참여자들은 '오늘건강' 스마트폰 앱과 지급받은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걷기나 물 마시기 등 개인별 맞춤 건강머신이 부여되며, 입수 수행 후 앱에 입력하면 전문인력이 모니터링하고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순창군민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650-5218, 5266)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바이오기업 육성' 국비 13억원 확보

남원시는 '2025년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사업'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관하는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농촌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계사업, 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종합기술원 등 기관과 협력하여 미래 유망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역 혁신 거점 활성화 및 사업화 기술지원

을 통해 남원시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 강화와 사업화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소재 기반 기술경쟁력 강화, 유망 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사업화 지원으로 신성장 사업모델을 발굴하는데 목표로 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가 그린바이오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산업연구원에서 곤충,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도와 지역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4회 남원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8일 개최

남원시는 오는 8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요철 심수정 일원에서 남원청소년 육성회(회장 박정민)가 주최한 제24회 남원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교유의 전통 민속놀이인 연날리기를 알리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들은 각자의 창의력과 솜씨를 발휘해 자신만의 연을 만들어 소망과 열원을 담아 날릴 예정이며, 우수 참가자들에게는 시상과 함께 기념품이 제공, 특히 제기차기, 투호, 고리 던지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하



면 된다.

박정민 회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